



Contents

- 01 메인칼럼
- 02 인문대학·교직원 동정
- 03 인사
- 04-09 학과 및 협동과정
- 10-14 연구소
- 15-16 취업
- 17 광고

칼럼



김병인

사학과 교수

‘(우리) 스스로’를 상상한다는 일

작되었다. 청나라는 무너졌고, 중화 세계는 해체되었다. 조선은 갑자기 스스로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외부 문명에 기대어 세계를 이해해온 사회가 단숨에 독자적 근대국가의 주체로 변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 틈을 일본이 파고들었다.

식민지 시기 조선인들에게 강요된 것은 단순한 군사적 복종만이 아니었다.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관이 추가되었다. 일본은 자신을 아시아의 중심 문명으로 자처했고, 조선인은 황국신민으로 재편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항했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엘리트들은 제국의 질서 속에서 출세와 안정, 근대화를 추구하였다. 식민지 근대는 폭력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강한 중심에 접속해야 살아남는다”는 오래된 신화를 다시 강화했다.

해방 이후에도 이 구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냉전 속에서 한국 사회는 미국을 새로운 문명의 중심으로 받아들였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영어와 소비문화는 생존 전략인 동시에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친미는 단지 외교 노선이 아니라 생활양식과 가치체계 전반을 구성하는 기준이 되었다. 한국인은 미국을 통해 근대성과 풍요를 상상했고, 동시에 안보를 의탁했다.

우리 역사에서 ‘진보적 사유’ 혹은 ‘급진적 자율 의식’이 사회 전체의 흐름으로 떠오른 시기는 생각보다 길지 않다. 군부독재 이후 민주화 과정,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형성된 비판적 시민의

식과 민중 담론은 오히려 예외적인 순간에 가까울 수 있다. 그 시기에는 국가·권위·외세에 대한 비판이 공론장의 중심으로 올라왔고, 개인과 민중, 자율과 저항이 중요한 가치로 등장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길어야 40년 남짓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흔들리고 있다. 사람들은 자유를 말하면서도 강한 국가를 원하고, 자주를 외치면서도 더 강한 패권국에 기대어 안정을 찾으려 한다. 이는 위선이라기보다, 오랫동안 형성된 역사적 감각의 무작위적 작동일지도 모른다.

한반도의 역사는 끊임없이 “어떤 중심에 접속할 것인가”를 둘러싼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일본, 미국이라는 서로 다른 이름 아래 반복된 것은 문명의 중심에 편입되고자 하는 욕망과, 동시에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의 충돌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단순히 친중이나, 친미나, 반일이나와 같은 진영적 구호가 아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에 가깝다. “우리는 과연 스스로를 하나의 독립된 정신으로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학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것을 상상한다는 것은 낮은 수준의 ‘짓거리’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그런데 자유(自由)는 ‘스스로 말미암는 것’이고, 자재(自在)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유자재(自由自在)의 구현을 위해서 ‘스스로를 상상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인문대학 환경 개선 사업 실시

• 인문대학 3호관 소강당 리모델링

1995년 3월에 준공된 이후 일부 강의용 기자재를 제외하고 환경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기자재의 호환성이 떨어지고, 무대 및 고정의자의 경우 29년 경과로 부품 조달이 어려우며 의자가 주저앉는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인문대(학장 김태완, 중어중문학과 교수) 3호관 소강당 리모델링이 완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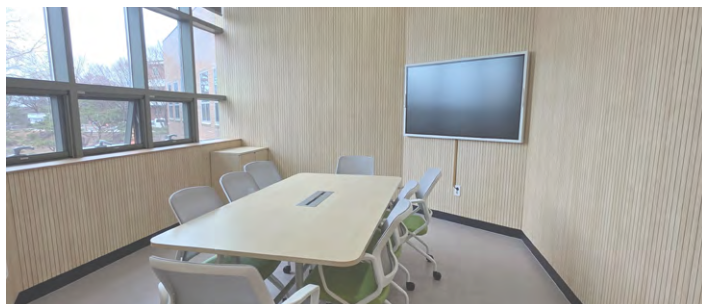
인문대학 소강당의 경우 교양강의실로 활용률이 50%가 넘으며, 접근성이 용이하여 대학본부 행사 및 외부, 학생회 주변 단과대학 등 행사를 목적으로 대관 신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한 상태였다. 2025년 12월 말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강의실 환경 개선 사업(공사비 255,000천원, 비품 261,916천원 소요)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었다.



개선 전



개선 후



• 인문대학 3호관 3층 팀학습실 리모델링

기존 팀학습실이 있었으나 노후되어 학생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았던 2개 실을 대학원 지원사업(예산액: 공사 33,209천원, 비품 6,791천원)을 통해 쾌적한 환경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1실은 대학원생 전용, 나머지 1실은 학부생 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교직원 동정

◆ 겸무

본부	사학과 교수 강은영 입학관리위원회 위원 (기간: 2026. 3. 3. ~ 2028. 3. 2.) 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위원 (기간: 2026. 5. 20. ~ 2028. 5. 19.)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강의혁 국제협력위원회 위원 (기간: 2026. 3. 9. ~ 2028. 3. 8.) 영어영문학과 교수 김연민 일어일문학과 부교수 임지영 규정심의위원회 위원 (기간: 2026. 4. 6. ~ 2028. 4. 5.)
부속 시설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최진경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이석구 도서관 고서전문위원회 위원 (기간: 2026. 3. 3. ~ 2027. 2. 2.) 철학과 부교수 이원석 전남광주인문사회연구원 본부장 (기간: 2026. 7. 10. ~ 2028. 7. 9.)

◆ 인사발령-2026. 3. 1.자

철학과 조교수 김진영

◆ 정년· 명예퇴직-2026. 8. 31.자

독일언어문학과 교수 정명순
 중어중문학과 교수 장춘석
 일어일문학과 교수 김정례
 사학과 교수 김병인

◆ 연구년-2026. 3. 1.자

영어영문학과 교수 신근영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문유미
 철학과 부교수 이원석
 인문학연구원 부교수 류도향
 호남학연구원 교수 김기성
 (기간: 2026. 3. 1. ~ 2027. 2. 28.)
 일어일문학과 교수 김정례
 (기간: 2026. 3. 1. ~ 2026. 8. 31.)

◆ 학과장 / 주임교수 / 사업단 / 연구소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준환
 한국어문학연구소장
 (기간: 2026. 2. 25. ~ 2028. 2. 24.)
 철학과 부교수 함형석
 철학과장
 대학원 철학과 주임교수
 (기간: 2026. 3. 1. ~ 2028. 2. 29.)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강의혁

대학원 인문커뮤니티융합학과 주임교수
 (기간: 2026. 3. 1. ~ 2028. 2. 29.)

독일언어문학과 부교수 최정애

유라시아인문융합연구소장
 (기간: 2026. 4. 1. ~ 2028. 3. 31.)

국어국문학과 교수 장일구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주임교수
 (기간: 2026. 4. 1. ~ 2028. 3. 31.)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강의혁

인문학연구원 겸임 근무
 (기간: 2026. 4. 3. ~ 2028. 12. 31.)

국어국문학과 교수 조경순

인문학연구소장
 (기간: 2026. 7. 1. ~ 2028. 6. 30.)

호남학연구원 교수 조태성

아시아문화협동과정 주임교수
 아시아문화연구소장
 (기간: 2026. 7. 1. ~ 2028. 6. 30.)

왜-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철학적 탐구



김진영
철학과 교수

인간은 오래전부터 “왜?”를 물어 왔습니다.

왜 사고는 떨어지는가? 왜 생명은 진화하는가? 왜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는가? 왜 인공지능은 특정한 판단을 내렸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서로 다른 분야의 질문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탐구하고, 그러한 현상을 설명하며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왜-질문”에 답하는 일은 각 분과 학문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리학은 운동과 힘을 설명하고, 생물학은 생명의 조직과 진화를 설명하며, 의학은 질병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경제학은 시장의 변동과 경제 현상을 설명하고, 역사학은 역사적 사건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설명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연구에서도 “왜 이 알고리즘은 이러한 결과를 산출했는가?”라는 설명의 문제가 중요한 연구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설명은 이제 자연현상뿐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의 관심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철학은 특정 현상을 직접 설명하기보다, 무엇이 좋은 설명인지를 탐구합니다. 어떤 설명은 단순한 예측에 머무르고, 어떤 설명은 원인과 구조를 드러내며, 또 어떤 설명은 개입과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설명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설명은 이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가? 우리는 언제 어떤 설명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과학철학과 의학철학, 인공지능 철학을 비롯하여 설명을 탐구하는 현대 철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저의 연구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과학에서 메커니즘 설명은 어떠한 구조를 가져야 하는지, 의학에서 질병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치료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은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판단을 인간에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설명이 어떻게 인간의 이해를 확장하고 새로운 탐구와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지라는 하나의 철학적 문제로 연결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방대한 정보와 뛰어난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많아질수록 무엇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설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성찰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철학이 이러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과 그 이해의 의미를 끊임없이 되묻는 학문입니다. 그러한 철학적 탐구는 언제나 가장 오래된 질문이자,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질문인 “왜?”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은 점점 더 많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을 얻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과연 같은 일일까요? 우리는 왜 여전히 “왜?”를 묻게 될까요? 그리고 왜 인공지능 시대에도 철학을 공부해야 할까요?

국어국문학과

2026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2월 2일, 국어국문학과(학과장 한정훈 교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이 인문대학 1호관 김남주 기념홀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학과 교수, 재학생, 신입생 6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는 학과 소개, 학사 일정 및 정보 안내, 비교과 프로그램 공유, 재학생과의 교류 등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과 소속감과 구성원 간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학과와 전공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신입생들의 전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고, 취업·진로 설계 특강을 통해 신입생들이 자신의 취업·진로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그려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



전공탐색 워크숍 <모꼬지> 성료

1학기 국어국문학과와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전공탐색 워크숍 <모꼬지>가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장성 수련원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1학년 신입생들부터 4학년 재학생까지 전 학년 학생들이 참여한 본 워크숍은 선배와 함께하는 전공 학습 길라잡이, 교원과 함께하는 전공 관련 진로 탐색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신입생들은 전공 탐색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재학생들은 전공 학습 강화로 취업 활동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은 본 워크숍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으며, 특히 다양한 단체 활동은 신입생들에게 앞으로의 학과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소통과 자치를 위한 <새날열기> 프로그램 성료

3월 26일, 국어국문학과는 학과 구성원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학생 자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어국문학과 새날열기'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학과 교원과 재학생 등 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학생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쌓기 위해 기획되었다. 행사는 학과 운영 방향 공유를 시작으로 학생회 예·결산 보고 및 사업 계획 발표로 이어졌으며, 특히 학과 내 연구회들이 직접 사업 계획을 보고하며 학술 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자유 발언과 안건 논의 시간에는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어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역량을 빛냈다. 이번 행사는 전공 학습과 연구 활동의 연계를 확장하는 한편, 재학생들이 학과 공동체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영어영문학과

2025학년도 학과(부)평가 국제화 영역 우수학과 선정

영어영문학과(학과장 백승현 교수)는 2025학년도 학과평가에서 국제화 분야 우수학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학생 국제교류 비율, 외국어 강좌 개설 비율, 국제 공동 연구 성과, 졸업생의 글로벌 경쟁력 등을 주요 지표로 이루어졌으며, 영어영문학과는 해당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영어영문학과는 전공의 특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외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국내외 학생과 연구자 간의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제적인 연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국제화 분야 우수학과 선정을 계기로 영어영문학과는 학생들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학원 석·박사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회 개최

영어영문학과는 2026년 5월 12일 인문대학 1호관 103호에서 2025학년도 후기 석·박사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에는 석사과정 1명과 박사과정 3명 등 총 4명의 대학원생이 참여하여 각자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연구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석사

과정 Rakhimjonova Barno Mansur Kizi는 Dual Visions of Addiction: A Comparative Study of Requiem for a Dream in Novel and Film을, 박사과정 이효인은 「포스트휴먼 위치의 지형학」을, 이선영은 「조지 오웰의 정치적 통찰: 거부와 저항」을, Keldiyorov Doniyor Kamol Ugli는 Empire in Parallel: Colonial Violence and the Myth of Civilizing Missions in the British and Soviet Empires through Literary Representation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번 공개발표회는 대학원생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발표회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도 마련되어 연구와 학술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독일언어문학과

전문가 초청 특강 제10회 <전남 게르마니아> 개최



독일언어문학과(학과장 지영은 교수)는 2026학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원을 받아 유라시아인문융합연구소(소장 최정애)와 함께 인문대학 1호관 김남주홀에서 2026년 4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독일 문학과 예술의 다매체적 만남'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포럼을 실시했다. 이 포럼은 각각 <장미에 찢려 죽은 시인 릴케-경계 없는 예술이 빛어낸 시>, <독일예술의 황금시대- 고전주의 미술의 이해와 감상>, <디지털게임과 서사 문화>이라는 독일 문학과 예술의 다매체적 만남이라는 주제 하에 문학과 예술의 다양한 결합지점에 주목한다. 세 차례의 특강 모두가 다양한 대학 전공생들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배경의 지역 시민의 참여로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특강에서 이어진 독일 문학에 대한 심층적인 사고와 열띤 토론을 통해 본 행사 운영의 목적과 취지를 확인하였다.

<2026년 하계방학 독일어 캠프> 운영

독일언어문학과에서는 학부 저학년 전공생들의 전공 역량을 키우고 고학년 전공자들의 독일어 자격증 시험을 대비해 2026학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2026년 하계방학 독일어 캠프>를 개설해 운영했다.

2026년 08월 18일부터 08월 27일까지 2주간에 걸쳐 전남대학교 독일언어문학과 초빙교원 Chirin 및 이아람 선생이 강사로 참여했고 약 15명의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이 캠프는 A2반과 B1반으로 나뉘어서 독일어 능력시험에 대비하고 일반적인 수업 현장에서 배우기 힘든 문화적 지식을 배움으로써 전공 역량 강화와 진로설계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불어불문학과

반기는 전공 체험 실시

불어불문학과(학과장 민진영 교수)는 5월 13일, 20일, 27일 총 3주에 걸쳐 광주·전남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과와 함께하는 <반기는 전공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경신여자고등학교, 전남여자고등학교, 영산고등학교, 첨단고등학교, 목상고등학교, 영암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에서 총 23명의 학생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행사는 전남대학교와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에 대한 소개로 시작됐다. 이어 프랑스와 프랑스어, 프랑코포니(프랑스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과에서 배우는 다양한 수업과 전공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불어불문학과 재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대학 생활과 학과 행사, 진로 탐색 경험을 공유하며 전공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김태훈 교수, 민진영 교수, 기영인 교수가 참여하여 프랑스어의 기초 표현과 프랑코포니 문화의 특징과 다양성을 소개하였다. 또한 졸업 후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 볼 수 있도록 도왔다. 재학생들은 대학 생활과 학과 행사, 진로 탐색 경험을 공유하며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마련했다.

문화 체험 시간에는 스텔라장의 노래 L'Amour, Les Baguettes, Paris를 함께 감상하고 후렴 부분은 같이 따라 부르기를 해보았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담은 음악을 들으며 프랑스어 발음을 배웠고, 동시에 프랑스어권 문화에 한층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다. 음악과 이야기를 통해 프랑스의 감성을 직접 느껴 보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

이번 <반기는 전공 체험> 프로그램은 참가 학생들이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불어불문학과에서 배우는 학문과 진로를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2026년 불어불문학과 하계 프랑스어 캠프

불어불문학과에서는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5일 동안 <2026년 하계 외국어 능력 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DELF A1, A2, B1/B2 단계로 나누어 총 3개의 분반을 운영하여 프랑스어 능력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좌를 진행하였다.

올해에는 기존 강의뿐만 아니라 소그룹별 프로젝트 준비 활동이 새롭게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영상, 공연, 프레젠테이션 가운데 하나의 형식을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준비하였으며, 마지막 날에는 각 조가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협업 능력과 발표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외국인 교수 3인(브르노 리오넬 장 로제, 제레미 에셋트, 레진 바네사)과 불어불문학과 교수진, 조교, 학생들(조주현 학생 외 50여 명)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프로그램은 통상적인 수업 현장에서 교육하기 힘든 언어 지식과 문화적 능력, 학문적 접근을 심화시킴과 전공 적성의 심화와 진로 설계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상 제작 활동과 Frankomédia(프랑코메디아) 대회를 연계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불어불문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신장을 위하여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중어중문학과

‘제1회 중국인문 교육콘텐츠 개발 세미나’ 성료

중어중문학과(학과장 이희경 교수)는 7월 1일 ‘제1회 중국인문 교육콘텐츠 개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발표를 맡은 정운조 교수는 학습자가 직접 원어민 유튜브 데이터와 시를 활용해 드라마 대사를 창작하고, 제미니(Gemini)로 음악을 만들어 문법을 체화하는 ‘체험형 PBL 교수법’을 제시했다. 또한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비판적 시 리터러시와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래형 인문 융합 자율 학습자 양성의 비전을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대 중문과 석사과정 1학년 정선한 학생, 교육부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선정

중어중문학과 석사과정 1학년에 재학 중인 정선한 학생의 연구과제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2025년에 시작된 본 사업은 인문사회 분야의 젊은 연구자가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문후속세대양성 사업이다. 총 901명이 지원한 이번 사업에 최종 선정된 과제 수는 198개로, 4.55: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 기간은 1년이며, 지원액은 1천2백만 원이다.

정선한 학생의 연구 주제는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을 활용한 국내 중어중문학 전공 교육과정 구조 분석’으로, 온톨로지 설계와 지식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거대언어모델(LLM) 등을 통해 전국 중어중문학 유관 학과의 교육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어일문학과

2025학년도 후기(2026.8.)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회 개최



일어일문학과(학과장 김성은 교수)는 지난 4월 20일 학과 교수 및 강사, 대학원생이 참여한 가운데, 2025학년도 후기(2026. 8. 졸업예정)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 공개발표회를 진행하였다. 이번에는 석사 1명(이다현), 박사 2명(김영복, 나준하)이 발표하였으며, 각각 「이타미 주조 영화 단포포(タンポポ)의 서사구조 연구」, 「일본의 시조탄생형 이류훈인담 연구」,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신체 이미지 변모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2026년 1학기 학위 논문 및 졸업 논문 공개 발표회 개최

철학과는 지난 5월 22일과 29일, 대학원 학위 청구논문 및 학부 졸업논문 공개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예비 연구자들이 그간의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고 비판적 토론을 통해 연구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5월 22일 진행된 대학원 발표회에서는 박사과정 5명과 석사과정 2명이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후기 분석철학, 헤겔, 하버마스, 라이프니츠를 비롯해 장자와 불교 철학 등 동서양을 아우르는 심도 있는 연구 결과물을 발표했다. 특히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을 통해 많은 학내외 구성원이 참여하며 열띤 학술 교류가 이뤄졌다.

이어 5월 29일에는 학부 졸업예정자들의 공개 발표가 개최됐다. 학생들은 아도르노의 예술론부터 현대 사회의 성과주의 문제, 한강의 소설에 나타난 미학적 실천 등 시대적 통찰이 담긴 다채로운 주제를 다뤘다. 학생들은 논문 낭독과 지도교수의 피드백 과정을 거치며 철학적 사유를 정교하게 다듬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원생 연구 역량 강화 위한 ‘하계 논문 멘토링 캠프’ 개최

철학과는 8월 20일 인문대 1호관에서 ‘대학원생 논문 투고를 위한 하계 논문 멘토링 캠프’를 개최하며 차세대 연구자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대학원 Bottom-up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캠프는 대학원생들의 논문 완성도를 높여 학술지 게재 실적을 향상시키고, 향후 BK21 5단계 진입을 위한 연구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캠프에서는 지도교수와 분야별 박사급 선배들이 멘토로 나서 논문 발표 및 1:1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다.

2년 연속 전남대학교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사업 선정, 지역 사회 철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남대학교 철학과가 2025년에 이어 올해도 앵커사업(구 RISE)을 통해 지역사회와 인문학적 공유를 이어간다.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지역민을 위한 미래라이프 철학 아카데미”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성인 학습자들의 주체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올해는 ‘AI 시대에 철학함의 의미’를 주제로 삼아, 중장년층의 인생 2막 설계를 돕고 디지털 환경 속에서 삶의 본질을 성찰하는 인문학적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교교와 연계한 ‘빛고을 청소년 철학 교실’은 광주광역시, 전남고 등 지역 4개교와 협력해 청소년들의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배양한다. 대학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학교 현장과 공유함으로써 철학 교육의 공백을 메우고 지역사회-대학-청소년을 잇는 ‘철학 커뮤니티’ 모델을 실현할 예정이다.

문화유산융합학과

2026학년도 상반기 학과 논문발표회 개최

문화유산융합학과(주임교수 최유준, 호남학연구원)는 5월 15일 진리관 607호에서 학과 교수들과 대학원생이 참여한 가운데 2026학년도 상반기 학위 청구 논문발표회를 진행하였다. 본발표회에서는 박사과정생 2명과 석사과정생 3명이, 예비발표회에서는 석사과정생 2명이 발표하여 총 7명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전통배개와 춘설현의 문화유산적 가치, 광주 기독교 선교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 18세기 나주 반가 음식문화, 박물관 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 문화유산의 가치 규명과 활용을 아우르는 주제가 다루어졌다. 발표 후 참여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갔다.



202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및 졸업생 배출

문화유산융합학과는 민족문화의 발굴·보존·복원·계승을 주도할 전문인을 양성하는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이다. 2026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에서는 석사 1명, 박사 3명 등 총 4명이 합격하였다. 한편 2026년 8월에는 문화재학박사 2명, 문화재학석사 1명, 문화유산학석사 2명의 총 5명이 학위를 취득할 예정이다.

인문커뮤니티융합학과

2026학년도 상반기 학과 논문발표회 개최

인문커뮤니티융합학과(주임교수 강익혁, 영어영문학과 교수)는 4월 23일 학과 교수들과 대학원생이 참여한 가운데 2026학년도 상반기 학위청구 논문발표회를 진행하였다. 예비발표에서는 석사과정생 3명과 박사과정생 1명이, 본발표에서는 박사과정생 1명이 발표하여 총 5명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마을돌봄공동체의 틈새 돌봄, 마을활동가의 사회적 인정 체계, 영화적 실천을 통한 공동체 재구성, 학교 기록의 디지털 지식 구조화, 공동장으로서의 학교 등 지역 공동체와 인문학적 실천을 아우르는 주제가 다루어졌다. 연구 대상과 접근 방법이 다양한 만큼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질의가 오갔고, 참여자들은 서로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사 수료 배은유, 한국연구재단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최종 선정

인문커뮤니티융합학과 박사 수료 배은유 학생(지도교수 박미선)이 한국연구재단 「2026년 인문사회분야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2년간 총 4천만 원). 연구주제는 「존성계(尊聖契) 자료의 디지털 지식 구조화와 자생적 공공성에 대한 연구 : 고흥향교 존성계안을 중심으로」로, 1913년부터 1970년까지의 고흥향교 존성계안을 지식 그래프 기법으로 분석해 공동체의 자생적 공공성이 작동하는 방식을 규명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디지털 역사학과 공공 역사학의 방법론으로 한국 지방사회를 분석하는 접근이 독창적이라고 평가하였다.

호남학과

2026학년도 상반기 학과 논문발표회 개최

호남학과(주임교수 최유준, 호남학연구원)는 5월 8일 학과 교수들과 대학원생이 참여한 가운데 2026학년도 상반기 학위청구 논문발표회를 진행하였다. 본발표에서는 박사과정생 1명이, 예비발표에서는 박사과정생 1명과 석사과정생 1명이 발표하여 총 3명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김덕령 기억의 변용과 충효리의 장소성, 무등산권 별서원림의 세계유산적 가치, 지역 여성의 공연관람 행위와 문화적 실천 등 호남의 역사와 문화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주제가 다루어졌다. 특히 예비발표에는 지정토론자가 별도의 시간을 배정받아 논평과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연구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박사과정 최아리, 한국연구재단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최종 선정

호남학과 박사과정 최아리 학생(지도교수 정명중)이 한국연구재단 「2026년도 인문사회분야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2년간 총 4천만 원). 연구주제는 「섬진강 유역의 '소금네트워크' 연구 - 전남 지역 근대 제염업의 재해석」으로,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 걸쳐 형성된 소금 유통망의 성립과 변화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생활 자원인 소금을 매개로 지역사를 미시사적 관점에서 접근한 점이 독창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인문융합연구원

인문융합연구원(원장 류도향, 인문커뮤니티융합학과 교수)은 2026년 상반기 동안 '플루리질리언스'라는 연구 의제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기반을 다지고, 국내외 학술교류와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폭넓게 추진하였다. 융복합 공동연구 오픈 스터디를 비롯해 세계인권도시포럼 특별회의,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워크숍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연구의 심화와 성과 확산을 함께 도모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체와 기억,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현대사회의 주요 문제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인문융합 연구의 기반을 확대하였다.

인문융합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인문학연구원은 5월 4일 규정개정을 통해 인문융합연구원으로 연구원 명칭을 변경하였다. 인문융합연구원은 향후 인문 기반의 학제적·융복합적 연구와 교육을 선도하는 연구소로서 비전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플루리질리언스 공동연구 오픈 스터디 운영

인문융합연구원은 4월부터 6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인문 기반 융복합 리질리언스 담론으로서 플루리질리언스 원리 탐색」을 주제로 상반기 융복합 공동연구 오픈 스터디를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연구원의 핵심 아젠다인 플루리질리언스의 이론적 원리와 인문학적 적용 가능성을 공동으로 탐색하고, 서로 다른 학문분야의 관점을 연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속적인 발제와 토론을 통해 연구자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향후 융복합 공동연구를 구체화할 수 있는 학술적 기반을 다졌다.



국제 학술교류와 연구역량 강화



인문융합연구원은 6월과 7월에 걸쳐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워크숍을 세 차례 운영하였다. 국제학술지 창간과 운영, 인문사회 분야 국제학술논문 작성과 투고, 연구성과 확산 전략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해외 연구자들이 참여한 「고통의 기억을 넘어 평화로」 연구워크숍을 통해 트라우마와 의례, 공동체, 인정과 정의의 문제를 국제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글로벌 연구협력의 폭을 넓혔다.

민주주의·인권·기억에 관한 학술적 성찰

인문융합연구원은 2026 세계인권도시포럼 전남대학교 특별회의를 공동 주관하고, 「AI와 권위주의 시대, 도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인공지능 기반 도시 거버넌스와 인권, 지역 민주주의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5·18 기억의 리질리언스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공동 개최하여, 5·18의 기억을 과거의 상흔에 한정하지 않고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와 회복을 이해하는 사회적 자원으로 재조명하였다. 재해 기억과 도시 리질리언스 등 다양한 주제의 세션을 통해 고통의 기억을 민주적 회복력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의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문화예술을 통한 인문학의 사회적 확산

인문융합연구원은 시민자유대학과 공동으로 애니메이션 〈무녀도〉 상영회와 안재훈 감독과의 대화 「〈무녀도〉 보다, 해설하다」를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김동리의 소설이 애니메이션으로 재해석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작품의 색채와 음악, 서사적 의미에 관한 감독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근대문학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였다. 이러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연구원의 학술적 성과와 인문학적 문제의식을 시민과 공유하고, 인문학의 대중적 접근성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외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인문융합연구원은 상반기 동안 국내외 기관 네 곳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연구원은 지역공동체 마을의 인문도시재생 교육 및 정책 개발을 위하여 4월 13일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4월 20일에 마을발전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5월 20일에는 일본 간세이가쿠인대학 재해부흥제도연구소와 플루리질리언스 아젠다의 국제적 학술연구 진흥을 위한 공동연구 및 연구 인력 교류 협정을 맺었다. 이어 7월 14일에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와 공동체 리질리언스 및 치유 관련 교육·정책 개발과 상호협력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교류협약을 체결하였다.

국내외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인문융합연구원은 상반기 동안 국내외 기관 네 곳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연구원은 지역공동체 마을의 인문도시재생 교육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4월 13일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4월 20일에 마을발전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5월 20일에는 일본 간세이가쿠인대학 재해부흥제도연구소와 플루리질리언스 아젠다의 국제적 학술연구 진흥을 위한 공동연구 및 연구 인력 교류 협정을 맺었다. 이어 7월 14일에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와 공동체 리질리언스 및 치유 관련 교육·정책 개발과 상호협력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교류협약을 체결하였다.

인문학연구소



『용봉인문논총』 제68집 발간

인문학연구소(소장 조경순,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지난 4월 30일에 『용봉인문논총』 제68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68집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문의 역할을 성찰한 연구들을 비롯하여, 언어·문학·문화 전반의 다채로운 주제를 아우르는 총 13편의 수준 높은 논문이 수록됐다. 연구소는 앞으로도 인문학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기초 학문의 융합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전남대학교 KOR컨소시엄, 인문학연구소, 한국비평문학회 공동주최 국내학술대회 개최

인문학연구소는 6월 26일(금)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김남주 기념홀에서 KOR컨소시엄, 한국비평문학회와 국내학술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포스트 디아스포라와 한국문학’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1부와 2부에서 각각 3명씩 총 6명의 발표와 그에 따른 토론이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디아스포라를 고향을 떠난 경험을 넘어 ‘경계 이후의 삶과 새로운 관계 맺기’로 확장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뜻깊다. 특히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한국문학이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포섭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포스트 디아스포라와 한국문학’의 현재적 의미와 미래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인문연구소

전남대 중국인문연구소-연세대 중국연구원, 학술 교류 및 협업을 위한 MOU 체결

전남대학교 중국인문연구소(소장 이희경, 중어중문학과 교수)와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이 지난 4월 3일 연세대에서 양 기관의 교류 증진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문적인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학술 교류 추진, 지역 학생 및 시민 대상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동 사업 협조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전남대 중국인문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4명 대거 선정

중국인문연구소 소속 연구원 4명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2023년 연구소 개소 이래 매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를 다수 배출해 온 중국인문연구소는 이번 공모에서도 선정자를 대거 배출하며 중국학 분야의 깊이 있는 연구 기반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었다.

이번 사업에서 장기 심층 연구를 지원하는 A유형에는 이두은, 정수진, 조혜진 연구교수가, B유형에는 나수연 연구교수가 선정됐다. 선정된 연구자들은 고대 고전학부터 현대 디지털 인문학까지 아우르는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두은 교수는 최근 공개된 출토 간독(簡牘) 자료를 바탕으로 그동안 소홀히 다뤄진 진대(秦代) 문학을 입체적으로 재조명한다. 정수진 교수는 근대 중국의 국가 미술전시회와 민간 단체를 연계해 ‘국가 미술장’의 형성 메커니즘을 규명할 예정이며, 조혜진 교수는 정현(鄭玄)의 4대 주석서를 통합 분석해 한대 유가 해석학의 일관된 체계를 증명하고자 한다. 나수연 교수는 파이썬(Python)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인민일보』 76년 치 코퍼스의 접속 사 사용 양상과 문체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호남불교문화연구소

대만 법고문리학원 불교학과-인제대학교 화쟁인문학연구소 3자 업무협약(MOU) 등 협약 체결

호남불교문화연구소(소장 함형석, 철학과 교수)는 4월 20일 대만 법고문리학원 불교학과, 인제대학교 화쟁인문학연구소와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법고문리학원 불교학과장 텅웨이젠(鄧偉仁) 교수, 화쟁인문학연구소장 박태원 교수, 호남불교문화연구소장 함형석 교수가 각각 서명했으며, 교원·학생 교류, 공동연구, 학술자료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3월 25일에는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와, 4월 13일에는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국내외 학술 네트워크를 넓혔다.

2026 여름 학술대회 〈인도 고전 문헌에서의 소요(逍遙)〉 실시

호남불교문화연구소는 인도티벳고전연구회와 공동 주관으로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인도 고전 문헌에서의 소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함형석 소장 외 조윤희 연구원, 최성호(서울대학교), 류현정·이수진(경상국립대학교)이 발표자로 참여하여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제13~16회 콜로키움 및 봄학기 월례발표회 성료

호남불교문화연구소는 3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콜로키움 4회, 월례발표회 3회를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붓다의 발견과 발명된 불교들〉, 〈현장과 잊힌 미륵의 후예들: 유가론 연구의 황금시대〉, 〈인도사상사에서 중론의 위상〉, 〈불교 무아설의 쟁점과 그 계승〉 등 불교사상사 전반을 아우르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월례발표회 또한 매월 꾸준히 진행되며 연구진 간 활발한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호남학연구원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조사 학술포럼 개최

호남학연구원(원장 김창규, 호남학과 교수)은 4월 24일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김남주기념홀에서 「호남 누정원림 잠정목록 등재 학술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한국학



남진홍원이 발주하고 호남학연구원이 수행한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조사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역사문화경관으로서의 누정원림 개념 재구성, 잠정목록 등재 추진 현황과 절차, 한국 서원 사례를 통한 신청서 작성 과정 등이 발표되었으며, 종합토론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과 향후 과제가 논의되었다.

나주 천년역사관 전시콘텐츠 발굴 연구 용역 사업 성료

호남학연구원은 나주 천년역사관 전시콘텐츠 발굴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6월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연구진은 나주의 자연유산과 유·무형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핵심 가치를 도출하고, 국내외 전시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라도 역사 속 나주의 위상을 드러내는 전시 서사 구조와 함께, 천년역사관의 공간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구성 및 전시 연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남광주인문사회연구원

전남광주인문사회연구원 출범 및 학술연구교수 임명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출범한 전남광주인문사회연구원(원장 이명규, 교학부총장/본부장 이원석, 철학과 교수)은 전남대 내에 분산 운영되던 36개 인문사회분야 대학부설연구소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총장 직속 기구로, 향후 5년간 총 200억 원, 연간 40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우수 연구 인력 풀(Pool)을 지속적으로 구성하고, 석·박사 학위자 배출을 도모하여 학문후속세대들이 단절 없이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커리어 트랙을 확립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전남광주인문사회연구원은 8월 10일 신임 학술연구교수 21명을 임명하면서 오리엔테이션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인문대학 1호관(김남주홀 및 이을호 기념강의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대학 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임명식을 개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신임 교수들을 환영하는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이명규 연구원장이 연구원 중장기 비전과 핵심 아젠다를 제시하였고, 연구 수행을 위한 복무 및 행정 사항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오후 3시에 개최된 '학술연구교수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이근배 총장이 직접 21명의 학술연구교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전반적으로 인문사회계열 연구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전남대는 5·18 연구와 호남학 연구의 중심으로서 인문사회연구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전남대학교가 세계 100대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신임 학술연구교수들이 국제적인 학술 논문 게재 등 각자의 자리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창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명규 전남광주인문사회연구원장은 "새롭게 연구원의 가족이 된 학술연구교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우리 연구원은 36개 연구소를 통합한 융복합 연구의 구심점으로서, 학문후속세대들이 흔들림 없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역사문화연구센터

중국 푸단대 문사연구원과 업무 협약(MOU) 체결 및 후속 학술회의



역사문화연구센터(소장 설배환, 사학과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오감과 음식: 입·눈·코·귀·손의 향연」(2024.09.-2030.08.)을 수행하며 1월 20일 중국 푸단대학(復旦大學) 문사연구원(소장 장칭 章淸, 역사학과 교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후속 활동으로 6월 19일 공동학술대회 “요리·요리사·상차림(料理·廚師·餐桌布置)”을 푸단대에서 개최했다. 박사과정 Wang Xiutang이 문사연구원 2026년 제15회 하계 연수과정 “아시아 예술, 종교 및 역사 연구”에 선발되었다. 이는 모두 센터 최초 업적이다.

“역사 탐구와 감각학”(CNU History-X & Sensory Studies) 세미나를 통한 세계적 도약

센터는 2024년 10월 이래 2026년 7월까지 총 17회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와 저명학자를 초청해 음식 문화와 감각 사례를 탐구하며 연구 능력 신장과 학술교류를 도모한다. 2월 11일 한수정 교수(미국 사우스웨스턴대), 4월 16일 토마스 콘란(Thomas D. Conlan) 교수(미국 프린스턴대), 4월 30일 김준 박사(전남대), 6월 12일 권준희 교수(캘리포니아주립대 새크라멘토) 등이 초빙되었다. 센터는 7월 8일 전남대학교 민속학 연구소와 공동학술회의 “The Boundaries of Taste: A Cultural Geography of Seaweed Edibility in East Asia”에서 일본·대만·프랑스 연구자를 초빙해 융복합 연구 모델을 제시했다. 센터는 생태·문화·역사·감각 연구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학계가 주목하는 한 학술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소장 설배환이 미국 최대 아시아학회 AAS 2026 밴쿠버(Vancouver)에서 “Sensing the Sacred and the Mundane: Multisensory Experiences in Buddhist Practices of Eurasia” 패널을 구성·발표해 연구성과와 방법론에서 국제적 위상을 입증한 것 또한 일례다.

학문후속세대의 지속적 성장, 우수 연구자 배양 및 새로운 초빙

역사문화연구센터는 석박사생의 학업·학술 활동을 지원하며 2026년 2월과 8월 한국사·동양사에서 석사학위자 5인(전남대 신봉현·김기택·라선호, 서울대 고동우, 이화여대 이민경), 박사과정 수료자 1인(Wang Xiutang)을 육성했다. 진로 성과로 학생연구자 1인(Zhao Feiyue)이 중국 일리사범대학 관공역사문화학원 부교수(2025.12.)로 임용되었다. 전임연구인력 소준철은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2026-2029)에 선정되었고 센터 경력을 더해 2026년 8월 전남광주인문사회연구원 학술연구교수로 신규 임용, 이직했다. 8월 1일 김우진 박사(전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대학 겸임교수, 미국 미시간대 박사)가 특별연구원으로 초빙되었다.

1학기 인문대 취업교과목 『핵심취·창업전략』 운영



인문대학은 취업교과목 『핵심취·창업전략』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취업준비를 지원하였다. 이 교과목은 『핵심취업전략』과 동일 과목으로 2025년 1학기부터 교과목명이 변경되었다. 이 교과목은 취업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와 같은 실질적 취업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업 내용은 채용동향, 직무기업 분석, 자기소개서, NCS 및 필기전형, 면접 대비, 취업계획 수립 등 취업의 서류전형에서부터 마지막 면접까지를 포함하고, 주제별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하였으며 총 67명의 학생이 수강하였다. 이 교과목은 2학기에도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인문대 취업지원실(062-530-3118)에 문의하면 된다.

• 핵심취업전략 교과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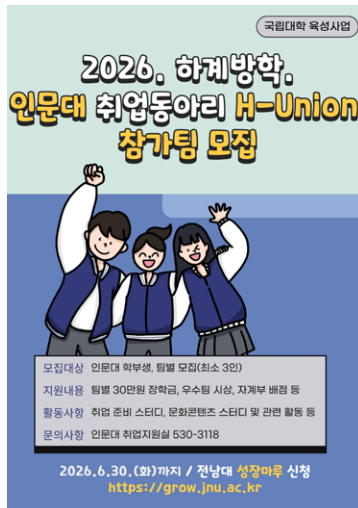
일자	주제 및 내용	강사/진행
3. 4.	교과목 오리엔테이션	인문대 취업지원관
3. 11.	기업 채용 트렌드 및 인문대 학생 취업전략	좋은인재교육 조익수 대표
3. 18.	인문계열 출신 현직자 직무 특강	DB손해보험 최은열
3. 25.	인문계열 진출 직무 및 기업 분석	플레이아카데미 지수현 대표
4. 1.	공공기관 취업 전략	스펙터로스(前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원) 김순호 대표
4. 8.	대기업/공기업 필기시험 준비전략	스펙터로스(前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원) 김순호 대표
4. 15.	자기소개서 작성법	의미공학연구소 유재천 대표
4. 22.	중간고사(과제 대체)	인문대 취업지원관
4. 29.	자기소개서 사례 분석	의미공학연구소 유재천 대표
5. 6.	면접대비 1분 자기소개	이겨라 전문 강사
5. 13.	면접유형별 대처요령	위더스커리어 황혜진 대표
5. 20.	창업 특강: 창업가 마인드	아르디에 김영환 대표
5. 27.	대학생활 및 취업계획 수립	좋은인재교육 조익수 대표
6. 10.	취업성공사례 및 종강	인문대 취업지원관
6. 17.	기말고사(과제 대체)	인문대 취업지원관

2026년 전통 기록문화 활용 콘텐츠 공모전 설명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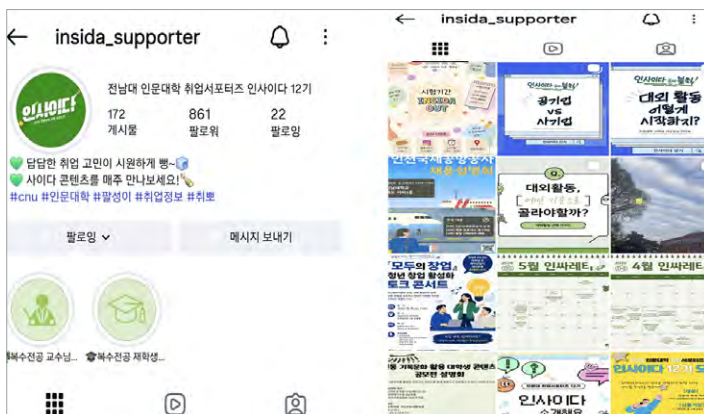
인문대학은 학생들의 창의적 기획 역량, 콘텐츠 제작 역량, 발표 및 협업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인문학 관련 콘텐츠 공모전 정보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전통 기록문화 활용 콘텐츠 공모전 설명회」를 4월 13일 오후 4시 인문대 김남주홀에서 개최하였다. 공모전을 주관하는 한국국학진흥원 정도희 연구원을 초청하여 공모전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으며, 사전 신청 학생 총 44명이 참여하여 높은 호응을 보였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이를 통해 인문학 관련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에 인문대 학생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우수 기획안 등이 발굴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2026년 하계 인문대 취업동아리 H-Union 운영



우리대학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인문학 전공 특성을 반영한 취업동아리를 매년 운영하고 있다. 인문학 전공 특성을 반영한 문화 동아리 뿐 아니라 실제 고용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직무에 대한 스터디 동아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취업동아리로 기획했으며 프로그램명은 '인문대 취업동아리 H-Union'이다. 6월 중 참가팀을 모집하여 총 13개팀 43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하계방학 동안 총 5차시 이상의 모임보고서를 제출하고 활동비(30만원/팀)를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또한 참가팀 교육으로 전문강사를 초청 「인문대생을 위한 노션(Notion) 기본 활용법」 특강을 참여하고, 마지막으로 8월 19일 성과발표회를 통해 팀별 활동 내용과 성과, 추후 계획을 발표한다. 인문대 취업지원실은 본 프로그램을 2학기에도 운영할 계획이며, 더 많은 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인문대 취업서포터즈 '인사이다' 운영



우리대학은 진로취업본부와 공동으로 인문대 취업서포터즈 '인사이다'를 운영하고 있다. '인사이다'는 사이다처럼 인문대 학생들의 취업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금년 3월 참가 학생 총 8명(학과별 1명)을 선발하였고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선발된 서포터즈 팀원들은 인사이다 온라인 홍보 계정을 통해 카드뉴스/월간레터 취업정보를 매주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다. 특히 인문대 출신 취업 동문(한국수자원공사 현직자)을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재학생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영상을 우리 대학 취업포털(커뮤니티-취업성공스토리) 게시판에 공유하였다. 취업서포터즈는 2학기에도 인문대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취업 정보들을 홍보하는 활동을 계속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인스타그램 아이디 'insida_supporter'를 검색하거나 팔로우를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민족시인 김남주
그의 시와 정신을 기리는 공간

김남주 기념홀

개관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주말: 오전 10시 ~ 오후 5시

(5월 한정 개관)

특별개관

신청에 의함

행사 시에는 기념공간 관람이 제한됨



김남주기념홀 운영위원회